

딪치는 소리와 댓잎 바람소리가 일품이다.

익숙한 듯 새로운 매력…'익산'에 반하다

5만㎡ 규모 '구룡마을 대나무 숲' 장관 바람따라 흘러가는 아름다운 선율 힐링 원불교·천주교 성지도 이색 관광 코스 미륵사지・왕궁리유적 등도 발길 잇달아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찾아가 새로운 경험을 하 는 건 우리가 여행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때 로는 그 반대로 전혀 낯설지 않은 친숙한 곳을 또 방문 할 때도 있다. 예전 추억을 되살리며 그때 즐거움을 다 시 느끼기 기대하는 것이다. 2022년의 끝자락에 찾아 간 이번 익산여행이 그랬다. 꽤 여러 번 찾았던 고장. 하지만 다양한 역사유적과 종교 성지, 그리고 지역 특 유의 여유로움을 조금 헛헛해지는 연말 정서에 다시 느끼고 싶었다.

●바람에 굽이치는 대숲의 노래

'어, 이런 곳에 볼만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숲 초입 까지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다. 하지만 작은 표지판 뒤 로 수줍게 시작하는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하늘로 우뚝 솟은 대나무들로 빼곡한 숲 속 은 한없이 고요하다. 간간히 눈에 띠는 표지판을 따라 완만하게 굽어지는 길 외에는 별다른 시설도 없는데 그 담백함이 또 마음을 끈다.

미륵산 자락 금마면 구룡마을 대나무 숲은 5만m² 규 모로 한강 이남 최대의 대나무 군락지이다. 드라마 '추 노'를 여기서 찍었다. 이곳 대나무들은 대체로 다른 곳 보다 굵지 않아 바람이 불면 숲 전체가 느린 속도로 출 렁인다. 그 때 대나무들끼리 퉁 퉁 부딪치는데, 그 소 리와 댓잎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한 편의 음악처럼 다가온다. 겨울철 정취도 기막힌데 여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유적의 오층석탑. 초록이 짙었던 여름과 봄날의 느낌과는 다른 겨울 저녁하늘을 이고 선 익산 | 김재범 기자 석탑의 모습이 색다른 감흥을 준다.

반딧불이의 군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한다.

●이리로 불리던 그 시절 자취

익산시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은 과거 '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고장의 1900년대 이후 발자취를 사료와 유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역사관 건물은 독립 운동가 삼산 김병수 선생이 1922년 개원한 삼산의원 건물이다. 아치형 포치 등 근대 건축 양식이 외관에 고 스란히 남아 있다. 내부에는 한때 은행 건물로도 쓰였 던 역사를 말해주듯 거대한 낡은 금고가 벽면에 자리 해 눈길을 끈다.

여산면 가람문학관은 익산 출신의 시조시인이자 국 문학자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7년 개관 했다. 문학관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인 가람 선생의 생가 수우재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가람의 시조 음 미하기(가람실)'에서는 대표작을 영상과 낭송 및 도폭 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마음에 깊은 여운 남긴 두 성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원광대학교와 마주한 곳에 원불 교 익산성지 중앙총부가 있다.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 산 박중빈 대종사가 이곳에서 18년간 교화를 펴다가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종교시설이지만 일반에 관내 대부분을 개방해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입구 안내실에 서 신청하면 해설투어도 가능하다. 대부분이 일제강점 기 주택인 적산가옥들인데 33만578m² 부지에 비교적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다. 원불교의 대표 성지임에도 별다른 꾸밈없는 소박한 모습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찾 는 이에게 가볍지 않은 여운을 전해준다.

망성면 화산에는 나바위성당이 있다. 우리나라 최 초의 신부인 김대건 성인이 처음 전도한 한국 천주교 의 성지다. 1906년 첫 건축 이후 증축을 거듭하면서 초 기 한옥 양식에 서구식 고딕양식이 더해졌다. 그 결과 정면은 3층 종탑과 아치형 출입구의 고딕양식이고, 지 붕과 벽면은 전통 목조한옥인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왕궁리와 미륵사지의 새로운 감흥

미륵사지와 석탑, 그리고 왕궁리유적은 국내 최대 백제유적으로 익산 여행객에는 필수방문코스이다. 익 산을 찾을 때마다 당연스레 늘 두 곳을 방문했다. 하지 만 2022년이 저물어가는 12월의 방문길은 햇살 화사 했던 봄날이나 여름에 찾아간 이전과는 느낌이 달랐 다. 너른 벌판 위에 시나브로 어두워지는 겨울 하늘을 이고 홀연히 서 있는 오층석탑의 왕궁리유적, 살짝 살 얼음이 낀 호수에 희미한 반영을 드리운 미륵사지 석 탑. 모두 여행의 들뜸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즈녁 한 회상을 여행객의 마음에 불러 일으켰다. 그 새로운 감흥이 참 좋았다.

익산 | oldfield@donga.com

여행

<u> 소</u>조 등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5**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마성 태국 '세계인을 사로잡는…' 저서 출간



해외여행지로 친근한 태국의 사 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신간 '세계인을 사로잡는 미소 의 나라, 태국 그 매력과 마력'(이유 현 저, 엑스오북스·사진)이 나왔다.

저자 이유현 씨는 한국에서 14년 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여러 분야를 담당했던 신문기자 출신이

다. 2003년 태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20여 년간 한국 홍보와 한류를 소개하는 한태교류센터(KTCC)를 운영 하고 있다. 태국 생활에서 느낀 체험담 등을 온라인에 포스팅해 700여 만 건의 방문자를 기록한 인기 인플루 언서이기도 하다.

책에서 저자는 '태국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까'. '태 국의 나라살림은 풍족할까', '태국 사회의 뜨거운 갈등 요소는 무엇일까', '태국인은 행복할까', '태국서 한류가 그토록 뜨거운 이유는 뭘까' 등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 상황, 왕 실, 사회현상, 전통문화, 한류 신드롬, 관광·음식·동물·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저널리스트의 관점에 서 차분하게 접근했다. 기자 출신다운 촘촘한 취재와 광 범위한 자료 조사, 스피디한 문장은 덤이다.



제철 대방어의 다양한 부위를 맛보는 랜딩 다이닝.

칠면조구이부터 대방어 해체쇼까지 제주신화월드 '페스티브 시즌' 운영

제주 서귀포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연말연시 페스티브 시즌 메뉴를 23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리 조트 내 레스토랑 6곳에서 운영한다. 뷔페 레스토랑 '스 카이 온 파이브 다이닝'에서는 칠면조구이와 페어링 와 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페스티브 시즌 디너 뷔페를 운영 한다. 해산물 중심 뷔페 '랜딩 다이닝'에서는 제철 대방 어를 해체쇼와 함께 꼬릿살, 등살, 살치살, 배꼽살 등 여 러 부위를 즐길 수 있다.

아시안 레스토랑 '신화테라스'는 인도네시안 가정식 크리스마스 메뉴를 내놓았다. 정통 광둥식 레스토랑인 '르 쉬느아'는 24일, 25일과 2023년 1월 1일 광둥식 시 그니처 레시피를 집약한 특선 코스메뉴를 선보인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3일(금) 서울 10/20 인천 30/30 춘천 30/30 -18 -8 0/0 대전 60/60 전주 70/60 강릉 -9 -2 대구 20/30 부산 10/10 광주 60/60 <u>-7</u> 제주 60/60 창원 10/10 지역 최저 날씨 최고기온°C

人至	き동아	The sportsdonga				제3977호	
발행인·편집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	08년 3월 249	일 창간	
본지는 신	문윤리강령 및 그	그 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독료	로: 한달 12,	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	0 제보·	투고 02-361-	-1616 sc	ol@donga.	.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23일 (금) 음력: 12월 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8 호랑이 호랑이 행운색:흰색 행운색:흰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흰색 행운색:청색 토끼 쥐 뱀 소

길방:남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 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 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 이다. 자제하라.

길방:서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

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 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 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 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 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 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 력을 하여라.

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 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 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 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 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 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 화불량을 주의하라.

길방:북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 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 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 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 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 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 이 생길 수 있다.

% 개

길방:서

행운색:흰색

길방: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 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 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 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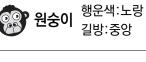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길방:서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 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 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 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 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 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 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 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 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 운도 놓치게 된다.

생물 돼지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 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 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 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 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 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 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 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 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 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 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 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 운 일은 성취된다.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 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 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 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 우고 착수하라. 가 들어온다.

행운색:노랑

길방:중앙